

희역은 생(生)으로 시작의 역이요 주역은 장(長)으로 변증법적인 성장이며 정역은 성(成)으로 원천회복의 천지공사를 완성하는 완성역(完成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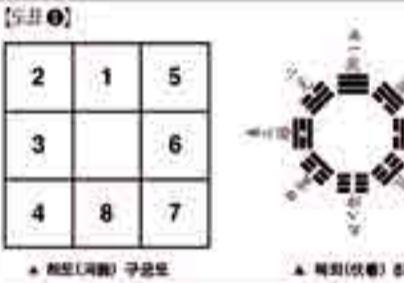
희역·주역·정역

역(易)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변화를 풀어내는 열쇠다. 우주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려 낸 것이 복희팔괘(伏羲八卦), 문왕팔괘(文王八卦), 정역팔괘(正易八卦)이다. 이를 희역(羲易), 주역(周易), 정역(正易)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역(易)이라고 하면 주역(周易)을 말한다.

희역(羲易)은 원천회복(原天回復)의 천지공사(天地公事) 설계도(設計圖)이며 복희팔괘도(伏羲八卦圖)라고 하고, 주역(周易)은 음양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변화 법도이며 문왕팔괘도(文王八卦圖)라고 하고, 정역(正易)은 미래의 우주 즉 회복된 천국의 완성도(完成圖)이며 정역팔괘도(正易八卦圖)라고 한다.

1. 희역(羲易)

원천회복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8괘(八卦)이며 희역(羲易)이라고 한다. 1년 375일에 대한 역(易)이다. 황하강에서 용마(龍馬)에 새겨진 그림을 태호(太皞) 복희씨(伏羲氏)가 보고 그렸다. [도표 ① 참조]



우주의 봄의 생성 원리를 담고 있는 복희팔괘는 일태극(一太極)을 중심으로 만물(萬物)이 창조, 생성되는 원리를 담고 있다. 태극(太極)에서 음양(陰陽)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四象)이 나오고 사상에서 다시 팔괘(八卦)가 생성된다. 태극이 삼면(三變)하여 팔괘로 벌어지면서 만물이 생성된 이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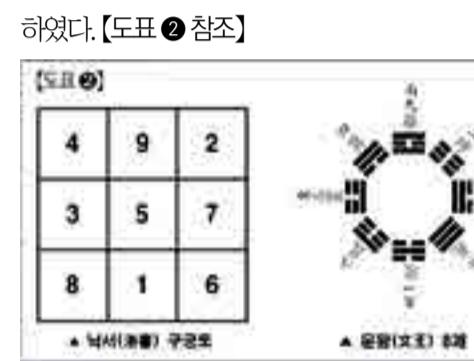
복희팔괘도를 보면 천지일월(天地日月)을 상징하는 건곤감리(乾坤坎離)가 우주의 중심축으로 동서남북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바로 복희팔괘의 건곤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건곤(乾坤)인 부모(父母)가 정남중북(中男中女)에 위치하고 감리(坎離)인 중남중북(中男中女)가 동서에서 부모를 공양하는 팔상(卦象)이다. 건곤(乾坤)이 우주의 바탕인 체(體)가 되고 일월(日月)인 감리(坎離)가 쓰임인 용(用)이 된다.

양(陽) 방위인 동남(東南)의 건태리진(乾兌離震)은 양이 성(盛)하는 과정이요 음(陰) 방위인 서북(西北)의 손감간곤(巽坎艮坤)은 음이 자라 성(盛)하는 과정이다. 마주 보는 패와 향이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음양이 조화되고 질서가 자리 잡혀 안정된 모습이다.

태극이 만물을 생성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태극팔괘도라고도 부른다. 복희 팔괘도는 생(生), 장(長), 성(成)의 3역(易) 중 생역(生易)에 해당한다.

2. 주역(周易)

주나라 문왕이 밝혀낸 8가지 괘(卦)로서 문왕팔괘(文王八卦)라고 한다. 우주의 변화원리를 밝힌 8괘를 말하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변화원리를 8가지의 괘(卦)로 그려낸 것이다. 1년 365일과 4분의 1일에 대한 역(易)이다. 우왕이 황하강의 지류인 낙수(洛水)에서 나타난 거북의 등에 표시된 부호를 보고 그런 것을 문왕이 완성 하였다. [도표 ② 참조]



문왕팔괘는 오행(五行)이 상극(相剋)하는 가운데 발전해 나가는 우주의 여름의 변화 이치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의 생수(生數) 5가 자리하여 우주의 여름이 분열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미완성인 화수미제괘(火水未濟卦)로 감리(坎離)인 물과 불이 정복과 정남방에 위치하여

중심축을 이룬다. 물과 불의 상극인 두 기운이 만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생수(生數) 5를 생성하게 된다. 문왕팔괘도는 아버지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조화의 서북쪽 술(坎) 방위에 자리하고 어머니 곤괘(坤卦)는 하주(夏秋) 교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서남방 10미토(未土)의 자리에 위치하여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남(長男)과 장녀(長女)인 진(震)과 손(巽)은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는 방위인 동과 동남방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정동과 정서방에는 진태(震兌)가 자리하여 진동태서(震東兌西)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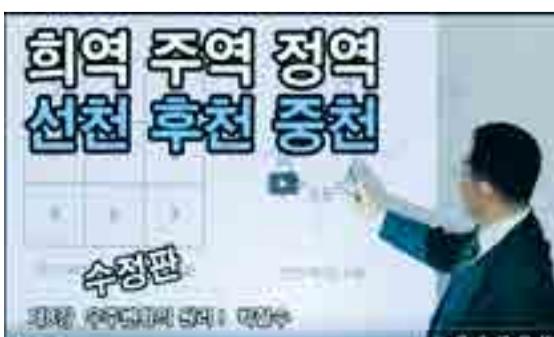
문왕팔괘는 중심축을 이루는 중남(中男)과 중녀(中女)인 감리(坎離)를 제외하면 어느 것도 대칭을 이루지 못한다. 이는 조화롭지 못하고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해가는 여름의 역동적인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물과 불이 우주의 중심축이 되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만물을 길러내고 있는 형상이다. 생(生), 장(長), 성(成)의 3역(易) 중 장역(長易)에 해당한다.

3. 정역(正易)

조선시대 김일부 선생이 밝혀낸 역(易)이다. 주역 계사전에 범삼백육십(凡三百六十) 당기지일(當其之日)이라 하여 1년 360일에 대한 역이다. 천지가 개벽되는 우주의 가들이 오면 지축이 바로 서고 천지가 바로잡힘으로써 건곤(乾坤)의 부모가 제자리를 잡는다. 곤남건북(坤南乾北)이 되어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지천태(地天泰)의 태평성대(太平聖代)의 조화로운 세상이 열린다. 천지공사로 완성된 우주의

교상이다. [도표 ③ 참조]

유튜브 진지아롱TV



정음정양(正陰正陽)의 변화 질서에 따라 3남, 3녀가 각기 제 짹을 찾아간다. 소남(小南)인 간(艮)은 정동(正東)으로 소녀(小女)인 태(兌)은 서방(西方)에 위치하여 천지부모(天地父母)의 역할을 대행한다.

천지부모(天地父母)인 곤(坤)과 건(乾)이

종(縱)으로 자리잡아 우주 변화의 바탕인 체(體)가 되고 소남(小男)과 소녀(小女)인 간(艮)과 태(兌)가 쓰임인 용(用)이 되어 동서 세계의 종교(宗教)와 문명(文明)을 통일

(統一)하고 지상에 태평성대(太平聖代)의 조화문명(造化文明)을 열게 된다.

정역팔괘(正易八卦)는 우주의 가을

의 변화 섭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극(無極)의 십(十)수 하나님의 중앙(中央) 토궁(土宮)에 5와 10으로 자리 하여 이기신 하나님의 10승(十勝)이 되어 빼앗겼던 우주를 회복하여 원천회복의 천지공사를 완성하는 완성역(完成易)이다.

그리하여 천(天), 지(地), 인(人), 만물(萬物)로 갈라진 우주를 중천(中天)의 81궁(宮) 금운(金運)에 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回復)하여 삼신일체(三神一體) 삼진귀일(三真歸一)을 완성하게 된다. 금운(金運)이 곧 토운(土運)이요, 황극(黃極)이며, 정역(正易)이다. 1981년부터 이

미 정역시대는 열렸으며 이 세상은 서서히 인간이 하나님의 되는 영생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민족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역시대(正易時代)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면 미래세에 올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천(中天)의 목운(木運)과 금운(金運)은 거론도 하지 않고 후천기벽(後天開闢)으로 끝내버리고는 배달국이니, 한배검이니,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만(一萬)년이 하면서 역사 타령이나 하고 있다.

또한 역학(易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와 64괘의 원리에 빠져 길을 찾지 못하고 인간의 사주(四柱) 명리(命理)와 길흉화복(吉凶禍福)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강일순 선생은 현세에는 이는 이가 없으니 점도 치지 말고 관상도 보이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종교인 및 역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가을의 추수를 맡은 백보좌의 심판자 정역(正易)의

주인공(主人公)이 역사하시는 승리제단(勝利祭壇)에 찾아와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자유율법(自由律法)을 실천하여 영생(永生)의 대복(大福)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유튜브 '진지아롱TV' - 8강 희역 주역 정역의 관계]*

박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54>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거짓말”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왜 흙을 빚어서 아담과 해와 둘만 만들었을까? 흙이야 얼마든지 있는데 자꾸 흙을 빚어 코에 생기를 풍기 흙! 흙! 흙! 불어넣어 수많은 인들을 창조하셨다면 14만 4천뿐만 아니라 50억, 100억, 1000억도 만들었을 것이다.

의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의인을 안 만드시고 죄인의 씨가 계속해서 퍼져 나가서 사망의 세상이 되

도록 방치했다면 이는 바보 하나님아니가? 이런 논리에 부딪히면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답이 금세 나온다.

오늘날 성경을 우상시하는 못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무조건 귀하다고 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짓이 맞지 않는 말도 다 귀한 말씀인가?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기는 삶

작지만 가치 있는 습관

무언가 이루고자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열정(熱情)과 시간(時間)을 투자(投資)해야 한다. 운동하려 헬스장 가는 것도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해야 원기를 얻을 수 있다. 시간이 없다고 하기 싫다고 다음으로 미루다가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다음에 소개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습관(習慣)을 내 것으로 만들어 활기찬 일상(日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

첫째, 잠들기 전에 반성(反省)하는 시간을 가져라. 잠자리에서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다음날에 좋은 영향(影響)을 미친다. 그러므로 잠자기 전에 5분 정도의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오늘 하루 생활(生活)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나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그런 일이 없으면 그날 특히 좋았던 일이나 다음날 다르게 해야 할 일 등을 적어보라. 당신 스스로에게 진실(眞實)해지는 시간이 되며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삼시 세끼를 제시간에 챙겨 먹어야 한다. 자신의 건강(健康)을 위해 아침, 점심, 저녁을 제시간에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를 해결(解消)하느라 전전긍긍해야 한다. 한 번 무너진 건강은 쉽게 회복(回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금강산도 식후경(食後景)이라고 했듯이 끝내버리고는 배달국이니, 한배검이니,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만(一萬)년이 하면서 역사 타령이나 하고 있다.

아침 식사를 여유롭게 하고 신문(新聞)을 읽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점심때 업무(業務) 파트너들과 같이 비즈니스 회사 시간을 갖는다든지, 저녁때는 친구(親舊)와 가족(家族)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維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진짜 구세주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구세주로 만드는 자

“빛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태하여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망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과 조금도 다른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상태에서 다시 본래의 하나님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만, 그 하나님(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가르쳐주어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수의 원리와 원성』 536쪽 인용



사망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는 정욕을 부릴 수 없는 영육간에 고자의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전지전능한 초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세계정세를 좌지우하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한다.*